

“SKT 유심 5만원에 팝니다”… 고액 중고거래 기승

유심 품귀사태 속 불안감 악용
중고거래 플랫폼서 고가에 거래
경제적 부담 감수 구입 ‘불필요’
“다른 통신사 유심 구매해도 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에 서둘러 유심을 교체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원가의 최대 10배가 넘는 액수에 유심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을 통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의 여러 SK직영점에도 유심 교체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심 수량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지자 일부 중고거래 채널에서는 SKT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겨냥해 유심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 29일 ‘광주광역시’로 거래 장소를 설정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해 보니 SKT 유심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SK텔레콤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 이틀째인 29일 광주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없음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김양배 기자

올라와 있었는데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게시물은 “LOCK 해제된 유심 판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 변경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어플을 통해 해당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판매점 폐업으로 인한 ‘락

해제’ 유심이기 때문에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오늘도 이미 몇 명이 사 갔다”고 주장했다.

몇 시간 뒤 올라온 게시글은 무려 10만원에 유심을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SKT 유심집 1개 판매”라는 제목과 “급하신 분 개통하세요”라며 가격을 크게 부풀렸다.

SKT 유심 정가는 약 7700원이지만 유심 수량이 부족한 점과 빨리 유심을 교체해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료 교체 대상자는 250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된 물량은 약 100만개에 불과하다.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하더라도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심 팔아요’, ‘SKT 알뜰폰 유심집’이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며, 구매 희망자들로 인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광주지역뿐만 아닌 전국적으로도 ‘유심 고가 판매’는 계속됐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SKT 유심 15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자산 많은 VVIP만 연락 달라”는 내용 탓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SKT가입자들이 원가보다 수 배 부풀려진 고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유심을 구매할 정도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가입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심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며 “빠른 교체를 원한다면 다른 통신사의 유심을 구매해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심’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있으니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건설업자와 도박판’ 화순군 간부공무원 뇌물 의혹, 경찰 수사

동료 등과 고스톱 치다 적발돼
공직복무관리관실, ‘수사 의뢰’

건설업자와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전라남도 화순군 소속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남경찰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서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화순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동료 건설업자와 고스톱을 치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으며, 당시 동료 공무원 3명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여왔으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집행,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

동료 선원 학대·살해 선장, 항소심서도 25년 중형

동료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까지 한 선장·선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조수민·정재우)는 29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선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기소된 선장 A(46)씨와 선원 B(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B씨에게는 1년 형을 더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원 B씨는 선장을 도

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단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원 B씨는 A씨의 극단적인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했고, 선내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비록 살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순찰하던 50대 해경 심정지… 병원 이송

다행히 바로 의식 찾아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섬에서 순찰하던 해경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9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항을 순찰 중이던 50대 해경 A씨가 쓰러

졌다. A씨를 발견한 동료 해경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A씨는 다행히 의식을 찾아 해경 헬기로 이송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